

# ‘도시가족 농촌체험’ 3년간 1000여명 참여 ‘인기’

농협 전남본부 곡성서 행사  
고구마캐기·밤잼 만들기 등  
귀농·귀촌 전 농촌생활 체험



최근 곡성군 오곡면 봉조마을에서 열린 농협 전남본부의 ‘도시가족 주말 농촌체험 행사’ 참가자들이 마을을 배경으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많은 사람이 귀농·귀촌에 실패하는 이유는 농촌과 농업에 대한 이해 없이 무작정 ‘농촌행’에 나서기 때문이다. 푸른 자연 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겠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성공적인 농촌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최근 귀농·귀촌을 하기 전에 농업과 농촌의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의 ‘도시가족 주말 농촌체험 행사’의 참가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가족과 함께 다양한 농촌의 삶을 경험하면서 농촌을 이해하려는 도시민이 늘고 있는 덕분이다.

농협 전남본부는 23일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족단위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전남농협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도시가족 주말 농촌체험 행사’의 2014년 이후 누적 참가자가 1000여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곡성군 오곡면 봉조마을에서 열린

이 행사에도 순천시민 40여명이 참석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고구마 캐기, 밤잼 만들기, 인절미 떡메치기 등 가족단위 농촌체험과 더불어 마을에서 준비한 푸짐한 시골밥상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김미정(여·순천시 조례동)씨는 “체험프로그램 구성이 좋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하게 됐다”며 “주말 농촌체험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남경 본부장은 “농촌 체험학습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가족공동체 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주부, 가족 등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농촌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성공적인 귀농·귀촌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 주간 증시 포커스

주요기업 3분기 실적시즌 발표

S&P 영국신용등급평가도 주목

중소형주 보수적 관점서 접근을

지난주 주요 이슈로 언급했던 ECB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동결을 발표했지만 드라기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통화긴축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향후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였다. 관심을 모았던 19일 중국 3분기 GDP 성장률은 신뢰성 논란은 있지만 3분기연속 6.7% 성장을 발표해 연간 성장률목표(6.5~7%)를 충족시켰다.

외국인 수급이 국내증시 분위기 반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외국인인 유가증권시장에서만 기관과 개인의 물량을 받아내며 8572억원 순매수를 보였고 코스피지수도 전주대비 0.5% 상승해 2033포인트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전환이 절실한 코스닥시장에서는 기관이 15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고 동기간 4024억의 순매도를 보였다. 외국인도 지난주 5일간 기관보다 많은 1563억의 순매도를 보이며 코스닥지수 하락을 부추겼다. 지난주 코스닥지수는 13포인트(-1.98%)하락한 651포인트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과 중소형주에 대한 상대적 약세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언급 했는데 최근 중소형주 하락이 시장점체를 유도하며 투자심리를 냉각시키고 있다. 코스닥시장과 중소형주의 경우 기관과 외국인 수급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증권당국의 강력한 부양여지가 없으며 당분간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단순 낙폭과대에 따른 시장접근에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주에만 60여개 국내 주요기업의 3분기 실적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이번주부터 3분기 실적시즌에 돌입한다. 은행과 화학 철강업종의 실적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삼성전자와 LG화학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난 가운데 IT와 자동차업종 부진은 이번주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2분기를 고점으로 4분기 실적추진지도 하향 조정되고 있어 실적장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있다.

국내에서 발표하는 지표중 25일 블룸버그에서 집계하는 한국3분기 GDP성장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동지표는 3분기 한진해운발 물류대란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의 단종사태, 김영란법 시행 등의 개별요인들이 경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내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변수는 28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국제신용평가사 S&P의 영국신용등급 평가이다. 최근 하드브레이크(급격하고 강경한 EU탈퇴)에 대한 우려속에 파운드화가 급락하면서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데 S&P는 지난 6월에 이미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두단계 강등(AAA → AA)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향조정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 유가증권시장은 외국인이 지난주 긍정적으로 수급이 전환되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미국 대선 압박과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전망심리가 확산되며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형주는 취약한 수급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수급은 재료가 우선한다’는 증시 격언이 있다. 중소형주는 과도한 낙폭으로 가격메리트가 발생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 곡성 감 수집·출하 물류비 절감 사업 설명회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23일 “지난 19일 곡성군 감 생산농업인들을 곡성군 주민회관에서 조직과 교육 및 사업설명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한서아그리코(농가컨설팅업체) 김병후 팀장이 연합사업과 연계한 농가조직화 추진전략, 농협전남지역본부 박석용과장의 전남과수산업발전계획 사업설명, 곡성군연합사업단 양일동팀장의 ‘16년 감품목 사업추진계획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곡성지역에는 감을 생산하는 농가가 506농가(단감 70농가, 뽕은감 436농가)가 있고 3362t(단감 992t, 뽕은감 2370t)을 생산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순회수집 감을 거점농협(곡성농협)APC로 운반하여 공동선별로 고품위의 감을 출하하고 등급별 균일화를 꾀하며 규모화로 수집·출하 물류비와 자체 공동구매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마련됐다.

강남경 본부장은 “생산자조직화는 대외환경과 소비시장의 요구 및 정책적인 지원 등의 측면에서도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며 “앞으로도 전남농협은 단 몇 명의 농가가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이러한 교육 및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직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내고향 물살리기 수기 공모전 시상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성광)는 최근 광주시 광산구 본부 소회의실에서 ‘제18회 내고향물살리기운동 실천수기공모전’에서 초등부 대상을 받은 박기현(목포 용호초)학생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올해 공모전은 지난 4월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1만8430명의 학생들이 물절약과 수질보전에 대한 경험들을 다양하게 표현했으며 부문별 대상 각1명, 최우수상 각2명, 우수상 각3명 등 총 18명이 수상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제공>

## 장흥서 ‘전남농협발전상생협의회’ 개최

농협 전남지역본부 (본부장 강남경)는 지난 21일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지부장 유해근) 회의실에서 지역 농·축협, 농협은행, 생명·손해 등 범 농협 직원 37명이 참석한 ‘전남농협발전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상생협의회는 계통 조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각 시군별, 직급별, 업무별, 연령·성별 등을 감안해 평소 조합원, 고객은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직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운영하는 협의체다.

전남농협 계통간 상생발전을 통한 백년대계를 고민하고, 밖으로는 농업·농촌의 발전과 금융·

유통시장 경쟁심화에 대응한 조직역량 결집을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청취하여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남경 본부장은 “상생협의회의 위원들에게 농업·농촌·농협의 동반 성장과 ‘농업인이 행복, 국민이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묵은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 강조하며, 많은 고민과 관심을 통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NH농협은행 광주본부, 가을 수확기 농촌일손돕기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영업본부장 김귀남)는 지난 21일 관내 지점장을 비롯한 직원 50여명과 함께 분량농협 영세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와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가을 수확기 농촌지역 일손부족 해소와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농촌마을 가꾸기를 통한 농촌활력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단감 수

확과 고추대 철거작업, 폐비닐수거작업을 함께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귀남 영업본부장은 “지금 농촌은 수확기 태풍피해와 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업인에게 희망을 전하는 농촌일손돕기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종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금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